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이 소 연

#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이 소 연

# 인 준 서

이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9년 ‘빠꾸기 지하실’이라는 석사 학위 청구전 작품들을 중심으로 주요개념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서술한 논문으로서 개인의 경험과 상상이 어떻게 회화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 과정인 것이다. 연구자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마음 속 미시적 공간을 창조하여 안정적인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시도 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존재’를 파고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운(氣運)’이라 생각했다. 연구자의 이러한 기운들을 가시적으로 화면 안에 포착하기 시작하였고 2차원의 캔버스에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가며 서서히 드러나는 존재들의 누적을 통해 연구자의 미시적 마음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 부터 내 존재를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결과물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작은 종이 안에 무수히 많은 생활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겼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의 존재성을 구체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 이었으며 현재도 연구자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연구자의 존재성을 나타내주는 캔버스를 ‘공간’이라 생각하였고 스스로 탄생시킨 공간속에 이야기를 담으며 연구자만의 특별한 세계관을 구축시키고 내면세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인류의 수많은 고민은 이제 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에 들어선 지금 더욱 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공간을 찾아 나선다. 그러한 공간이 한 개인에게 각각의 사연과 시기가 맞아 떨어져 혼자만의 이야기가 영겨있는 특별한 세계를 구축해간다. 그 세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뚜렷해지고, 눈앞에 펼쳐진 단 하나뿐인 화면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연구자가 유년시절 지하실에서 느꼈던 떨림과 신비로움을 공간이라는 주제로 표현 하였으며 그 공간 안에 펼쳐지는 화면들은 연구자가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구조물이며 관념 속의 형용할 수 없는 존재들을 캔버스 속에 가시적으로 투영하여 인간이 사유하고 인식하는 것들을 관념 속으로만 가둬두지 않고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정신적 공간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여 인간과 공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해 보았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정신적인 공간이 연구자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서술하였다. 연구자의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물리적 표현으로는 지하와 지상으로 표현하였고 조형적인 요소로는 직선, 색채적인 요소로는 빛을 주된 요소로 나타내며 연구자가 구축한 새로운 공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추후 작업의 방향성을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작품 내용 분석 .....	4
1. 인간의 사유(思惟) .....	4
2. 인간과 공간 .....	8
III. 작품 표현 연구 .....	12
1. 지하와 지상 공간표현 .....	12
2. 직선과 빛 표현 .....	23
IV. 결론 .....	30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떨어진 공간, 90.6 × 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10
【작품2】 지하실,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3
【작품3】 반응,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3
【작품4】 폭포, 66 × 53cm, 캔버스에아크릴, 2018 .....	14
【작품5】 수영장,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4
【작품6】 향해 시리즈1, 15 × 15 × 3piece 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5
【작품7】 향해 시리즈2, 27 × 27 × 2piece 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5
【작품8】 숨겨진 연못1, 53 × 35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6
【작품9】 숨겨진 연못2,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	16
【작품10】 숲, 60.6 × 236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16
【작품11】 창문, 90.9 × 145.4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17
【작품12】 전망대, 172.7 × 60.6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18
【작품13】 바람이 많이 부는 날, 90.9 × 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19
【작품14】 에셔의 방, 116.8 × 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2
【작품15】 성 안, 45.5×37.9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4
【작품16】 성 벽, 65.1×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4
【작품17】 떨어진 남자, 90.6 × 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4
【작품18】 밤하늘, 154.4 × 181.8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	26
【작품19】 홀로그램,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7
【작품20】 구멍1, 27.3 × 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8
【작품21】 구멍2, 27.3 × 44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8
【작품22】 창문2, 27.3 × 6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9

## 도 판 목 차

【도판1】 상대성, 63 × 53cm, 석판화, 1953 .....	20
【도판2】 폭포, 석판화, 1961 .....	20

## I. 서론

본인은 2019년 ‘빠꾸기 지하실’이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청구전을 열었다. 그 당시 연구자는 작은 거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 깊은 계단에 이끌려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나는 물리적인 노력 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을 하는 듯 한 기분을 느끼며 스스로 새로운 광경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계단의 끝은 없으며 작업의 수가 늘면 늘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세계는 황홀하였다. 지하실로 들어가는 계단은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환영의 시작 같았다. 그렇게 계단이 등장하였고 언제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새(bird)는 높은 하늘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나는 그 새를 지하실로 이끌었다. 그렇게 ‘빠꾸기 지하실’이라는 타이틀이 생겨났고 새를 영똥한 지하실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본인이 구축한 신비로운 공간을 낯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회화를 창작한 이후엔 존재(存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눈앞에 있는 회화가 나와 완전히 일치하는 정신적 산물인지 아님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낸 독립적인 존재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날 고민 끝에 연구자는 한 인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우주로부터 상응하기 위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나 연구자의 유일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존재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자의 작은 우주가 만들어진 셈이다.

우리는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각자의 작업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공간에 찾아가게 되면 공간에 놓여있는 작업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게 참 재미있다.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작업들을 하는지 작업 없이 맨 몸으로 앉아 이야기 할 때와 사뭇 다른 낯섬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낯섬은 비단 예술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 나와 가까운 가족한테 마저도 느껴지는 낯섬은 어쩌면 각자 본인들이 구축한 세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단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움직이도록 존중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본인의 작업은 연구자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어 공간을 주된 요소로 가져왔다.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은 지하와 지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조형적인 요소로는 직선, 색채적인 요소로는 빛으로 나타내었고 작은 입구에서 시작된 하나의 공간은 끝없이 지하와 지상을 오르내리며 그 주변 풍경은 차갑고 폐쇄적 이면서도 조형적 선들의 조합과 색채로 가득 메워진 공간을 연구자는 어떤 시선과 감정을 담아 표현하려 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 표현연구에서는 네덜란드 판화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ce Cornelis Escher)의 반복적 공간표현이 선사하는 비일상적인 세계와 더불어 다른 차원의 사유를 결합해 볼 것이며 조형표현 연구에선 기하추상의 선구자인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을 통해 수직·수평의 합이 조형적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연구하며 연구자의 작품과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작품 내용연구에서는 인간이 범우주적 세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를 인식하며 나아갔는지 서술하려 한다. 인간만이 사유하고 지각하는 여러 가지 인식과정을 시작으로 인간과 공간과의 관계를 철학적 사유로 해석해보며

결과는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공간(칸트에 의하면 공간은 우리의 지각이 갖고 있는 선형적 인식들이다. 즉 세계에 대한 나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 이전의 조건이다. 공간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이루고, 내 지각의 주관적 형식이기에 칸트는 이것을 선형적 관념성이라고 보았다)<sup>1)</sup>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1)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4

## II. 작품 내용 분석

### 1. 인간의 사유(思惟)

인간은 사유(思惟)한다. 그리고 인식한다. 칸트에 따르면 사유는 공허한 것이며 인식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허한 사유 안에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는 결국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고차원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Cogito ergo sum’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서양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 유기체로서가 아니라 데카르트적인 분할의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육체 속에 내재하는 고립된 자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sup> 생각하기에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처럼 사유할 수 있는 고차원의 공간이 있기에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된 자아는 개인의 활동이나 재능, 감정, 신앙 등에 따라서 수없이 쪼개져 많은 분야로 더욱 분열되어 가고 이것은 한없는 갈등을 일으켜 형이상학적 혼란과 좌절을 끝없이 유발시키기도 한다.<sup>3)</sup>

인간이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신체를 통해 활동을 하며 ‘이성’이라는 사고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명확한 척도로 삼는다. 이성은 상위능력으로서 지성과 감성을 통제 하에 두고 감성의 시간과 공간을 직관 형식으로 하는 현상 수용과, 지성의 순수 지성 개념(= 범주)의 발동에 의한 협동을 수행시켜

---

2)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 이성범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2006, p.40

3)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 이성범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2006, p.41

인과적 인식을 산출하는 능력이다.<sup>4)</sup>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성장하고 진화해 나간다. 생산적인 활동으로는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며 농경사회를 이루고 이후 씨족사회, 유동적 유목생활, 문명 등을 일궈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지적생산물을 통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존재성을 확인받으려 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유한한 삶을 깨닫고 죽은 이들이 사는 또 다른 세계관을 정교한 상상으로 만들어 가며 사후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종교가 나타났으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상 그리고 정신적 삶의 연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간은 사회라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인이 각자의 삶을 살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 가는지 그리고 다른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한 인간이 사회에서, 커다란 우주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저마다 다양하며 여러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단련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인간 고유의 특징들은 무수히 많은 예술작품으로 탄생되었으며 우리는 그러한 작품의 역사를 답습하고 조상들의 유물을 정신적으로 누적시키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인간은 30조 분의 1이라는 확률로 탄생하고 그에 맞는 48개의 염색체를 받아야 하며 그 안에 셀 수 없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단 한명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자연에 맞는 속도로 성장하며 온 인류 중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자라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고유 특징들은 보편적으로 일관성 있는 형태이며 이러한 큰 형태 속에서 한 인간의 유일성은 ‘개성(Individuality)’이라 불리며 독자적인 세계관을 펼쳐나간다. 개성이란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갖는 특징을

---

4)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 [人間, Mensch] (칸트사전, 2009. 10. 1., 사카베 메구미, 아리후쿠 고가쿠, 구로사키 마사오, 나카지마 요시미치, 마키노 에이지, 이신철)

말한다.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개성의 신장·발전이란 개개의 인간이 가지는 특징, 즉 신체상의 운동능력이든 정신상의 감성 혹은 사고능력이든 각자가 갖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러한 특징은 사회 구성원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분담으로 구분되어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역량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개성’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 하나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구자는 본인이 가지는 여러 개성 중 가장 돋보이는 수단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이란 수많은 색들과 선, 형상 등을 한 화면에 배치하며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탄생되고 이러한 결과물은 행위자가 추구하는 생각 등이 반영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연구자가 이상적이라 느낀 색채와 조형적 조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연구자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결과물로 연구자는 유년시절 자아정체성을 찾았고 그 당시 느꼈던 기분은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갖는 방법 중 하나의 요소인 ‘자아 성취감(成就感)’은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이용하여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 개인 스스로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가 되는 것,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어떤 일 등에 몰두하는 것, 그러한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 자신이 의미 있다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것, 일을 함으로 인해 생산적이고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며 항상 창조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 등 자아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sup>6)</sup>. 자아성취감이 실현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내적인 본성을 충분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연구자는 성장과정에 있어 그

5) [네이버 지식백과] 개성 [Individuality, 個性, Individualitat] (철학사전, 2009)

6) 김유진(2009), 「요가수련자의 참여동기와 자아성취감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1

7) 유경아(2017), 「호텔 주방의 물리적 환경이 자아성취감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청운

림을 통한 성취감을 매번 느꼈으며 이러한 성취감은 곧 자기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의 성장기 시절은 그림을 통해 단단해졌으며 작은 종이 안에 모든 생각과 상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아내며 끝없이 쌓여가는 종이들은 아주 커다란 주머니 같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이후엔 더욱더 확장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하이데거는 예술을 “진리를 작품 안으로의 정립”(das Ins - Werk - Setzender Wahrheit)이며, “진리를 밝히는 기투”(das Lichtend Entwerfen der Wahrheit)이다. 이것은 한갓 진리를 감각적으로 모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존재진리를 작품 안에 건립한다는 뜻이다.<sup>8)</sup> 라고 표현 하였듯이 이런 창조적 사고를 통한 지적생산물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더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행위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고라 생각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간사유의 인식은 필수불가결한 삶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8) 김동규(2003), 「시짓기와 사유하기 사이: 후기 하이데거 예술철학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iii

## 2. 인간과 공간

인간 현존재의 시간적 구성틀 문제는 실로 현대철학의 기본 주제라고 할 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맹렬한 기세로 철학계를 점령했다. 이에 반해 인간 현존재의 공간적 구성틀 문제, 쉽게 말해 인간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이 흥미로운 이론들은 철학이라는 좁은 영역을 들어오지 못하고 의학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금방 잊혀진 듯하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중심과 관련되는 시간과 달리 공간은 인간의 외적 생활환경만을 구성한다고 여겨 철학적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sup>9)</sup> 하지만 연구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인간존재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접근으로 시작된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은 수학적,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선형적 사유의 공간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공간은 무한으로 확장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극도로 좁아 질 수 있는 매우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높은 고차원의 공간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기에 인간은 공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생각에서조차 공간과 떨어질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하이데거가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는 말로 설명했던 ‘내-존재’(In-sein)와 동일한 문제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존재(In-sein)는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이고 실존이다. 그렇다고 신체(인간의 몸)가 어떤 존재하는 존재자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내-존재(In-sein)는 세계-내-존재(In-der-Welt-sein) 라는 본질적인 구성틀을 가진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이며 실존론적인 표현이다.<sup>10)</sup>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릇이 크다’ 혹은

9)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11 p.12, p.13

10)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3

‘그릇이 작다’라는 비유는 곧 마음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 인데 그 마음의 그릇은 본디 눈에 보이는 고정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운(氣運)의 크기이자 앞으로 인간으로서 성장 할 수 있게 만드는 무한대의 비어있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그 그릇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과 힘은 고요히 머물러 있다가도 표출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은 삶의 근본이 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노자 철학의 주제중 하나인 무‘無’와 유‘有’의 관계에 있어 신영복 교수<sup>11)</sup>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은 그 속이 ‘비어 있음’(無)으로 해서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無)으로 해서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無)으로 해서 방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따라서 유‘有’가 이로운 것은 무‘無’가 용‘用’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즉 유‘有’의 배후로서의 무‘無’를 드러내는 것이 노자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역설적인 숨겨진 구조를 연구자는 마음이라는 비어있는 공간(無)이 있기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고 판단하였고, 공간을 채우는 지적생산물의 결과는 작품(有)이라는 결과로 도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위는 인간 존재로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며 자아(ego)를 탐험하는 신비한 경험이라 생각한다.

---

11) 신영복, 1941~2016,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광복절 특별가석방을 받아 출소했다. 대표작으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이 있다.

12)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17, p.292, p.293



【작품1】 떨어진 공간, 90.6 × 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이러한 신비한 탐험의 과정을 캔버스라는 2차원의 화면에 3차원의 공간을 투영하기 시작했다. 캔버스에서 보여 지는 3차원의 공간은 연구자의 심연 속 방이 되어 구축되기 시작했다. 주로 등장하는 공간은 연구자가 유년시절 아파트 지하실에서 느낀 감정을 담아낸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지하실이란 보통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습하며 그러기에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부피가 큰 물건들의 보관이나 보일러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숨겨놓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의 공간과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낯선 공간이다. 게다가 이러한 지하의 공간은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공간이다. 이러한 낯선 공간을 연구자는 작업의 소재로 삼아 더욱 더 낯설고 신비스럽게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차갑고 어두운 지하의 공간과 따뜻하고 안정적인 지상의 공간을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느꼈던 연구자의 기억을 통해 연구자가 상상하는 존재들을 가득 채우며 출입하기 전 큰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결코 평범하지 않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지하실 혹은 창고에 가득 채워진 물건들을 보면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

듯 연구자가 추구하는 모든 것 들을 캔버스라는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은 곧 연구자를 대변하는 것들이며 이러한 공간은 결국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용할 수 없으며 특정하게 주어진 이름도 없는 무언가를 보관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도 인간 삶에 있어 필수적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존재들의 누적은 비어있는 캔버스의 공간을 채워나가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창조적 사고활동을 통해 생산품을 창조하는 행위야 말로 본인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마주해 보는 경험이자 융합적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 Ⅲ. 작품 표현 연구

#### 1. 지하와 지상 공간표현

연구자는 어린 시절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지하실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다 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그 당시 초등학생인 나로선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 이였다. 연구자는 매일 우편함 밑으로 보이는 지하실 계단을 지나침은 물론이고 1층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층 바로 아래인 지하실에 너무도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연구자는 친구들과 함께 일명 ‘지하실탐험’ 계획을 세우고 잔뜩 상기된 기분으로 일렬로 줄을 지어 난생 처음 아파트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보게 된 지하실 광경 이였다. 쿼퀴한 냄새와 서늘한 공기, 바닥엔 배수처리를 위해 멀리까지 바닥에 곤은 흙이 패여 있었다. 그리고 높은 천장 위로는 폭이 좁은 창문으로 작은 빛들이 들어왔다. 청소를 위한 수도꼭지와 용품들을 보고 긴장이 살짝 풀렸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지하실은 문이 없이 벽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었는데 아마 연구자는 옆 동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당시 공포영화를 잘 보는 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청소도구를 보고 긴장이 풀려 친구들보다 앞장서 강한 척하며 벽을 넘어갔다. 그 때 연구자의 무방비한 시야에 공포의 대상이자 탐험의 목적인 노숙자(사람)의 흔적인 이부자리가 한순간 포착되고 말았다. 그리고 더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고함을 치며 지하실을 빠져나온 기억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아파트지하실 하면 그때의 광경이 생생히 기억이 난다. 비단 아파트지하실 뿐만 아니라 학교 지하실에도 귀신이 있다며 서로 지하실로 밀치고 도망가고 하는 소소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연구자가 생각하는 지하실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발을 무겁게 만들고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는 행위마저도 엄청난 용기를 일으키는 아주 신비스러운 공간이다. 점점 빛이 줄어드는 계단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문까지 열었다. 그리고 펼쳐지는 화면은 오로지 연구자의 몫이다. 연구자가 실제로 목격한 장면은 서늘한 콘크리트였지만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연구자는 하나, 둘 ... 무한정으로 연구자만의 공간을 구축해 나가고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밑의 공간이라 생각 했던 지하의 공간 안에 ‘물’을 넣었다. 너무 깊고 어두워 차마 인간의 능력으로는 발이 닿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이다. 【작품2】,【작품3】 보게 되면 계단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가득 모여 있고 【작품4】,【작품5】에서는 흐르는 물과 사방에 가뒀진 물이 있다. ‘물’을 떠올리면 연구자는 ‘정말 깊고 어둡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한다.



【작품2】 지하실, 66×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작품3】 반응, 66×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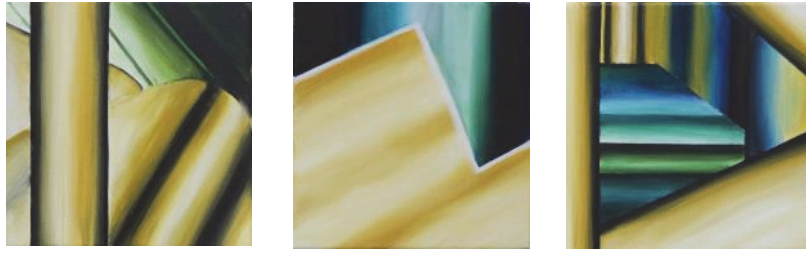
【작품4】 폭포, 66×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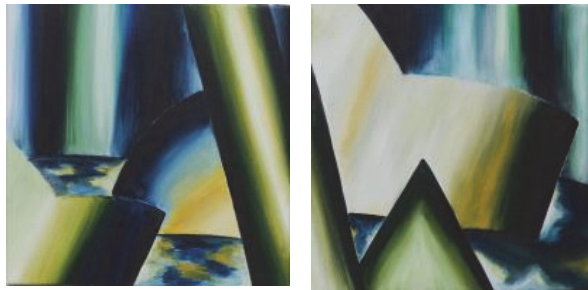
【작품5】 수영장, 66×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물’은 지구라는 행성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라고 연구자 스스로 정의를 내렸다. 우리는 당연하게 인식하는 풍경 즉 인간을 기준으로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눈앞에는 초록이 있고 발아래에는 물이 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인간은 물과 하늘 사이의 지표면의 경계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갇혀버린 채 탄생한 인류는 우주로, 바다 속으로 끊임없이 탐구하며 돌파할 궁리를 하고 있다.

【작품6】,【작품7】을 보면 ‘항해’라는 제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작품세계에서의 공간 이동은 땅을 통해 걷는 행위보다는 바다 위를 배를 통해 건너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가 배 위에서 화면 속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듯 연구자가 구축한 개인적인 사유의 공간을 천천히 배가 이동하며 시선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항해하며 바라보는 화면들은 사유의 허공 속에 만들어진 인식의 결과물이며 인식 안에 연구자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어가며 풍경들을 만들고 감상하며 연구자의 성취감과 행복을 자급자족하는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작품6】 향해 시리즈1, 15 × 15 × 3piece 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작품7】 향해 시리즈2, 27 × 27 × 2piece 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유유히 흐르는 물결 위로 몸을 맡기는 여유는 연구자가 온 힘을 다해 화면을 가득 채우고 한참을 바라보는 행위와 같다. 한참을 바라보고 숨을 돌린 뒤 작업공간을 벗어나는 감정은 마치 열심히 일한 이의 퇴근길 같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작품의 생성은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며 증거로서 자기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이 연구자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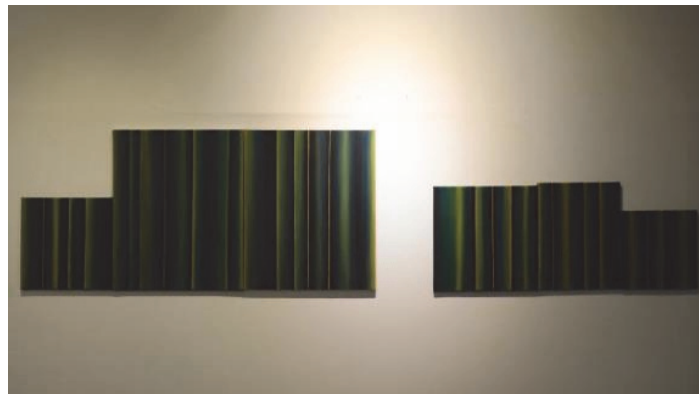
‘물’이 등장하고 연구자는 ‘숲’을 개간(開墾)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나타나는 초록의 기둥들은 얼핏 차갑고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연구자의 세계에선 무엇보다 ‘물’과 어울리는 자연적인 버팀목 이었다. 그 당시 처음 학교를 벗어나 작은 거실을 작업실 삼아 그림을 그렸다. 연구자에게겐 강한 중심이 필요했다. 동양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line)은 부가적인 요소 없이도 엄청난

조형 효과를 표현하며 붓을 다루는 화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수준 높은 기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선(line)들의 조합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오히려 덩덤히 정리해 나갔다. 곧게 뻗어있는 기둥들은 연구자의 세계를 지탱해주는 완벽한 중심, 즉 나무들 이었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연못은 생명력이 가득한 깊은 미지의 세계였다.



【작품8】 숨겨진 연못1, 53 × 35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작품9】 숨겨진 연못2, 66 ×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작품10】 숲, 60.6 × 236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그리고 연구자를 지탱하는 기둥들을 좀 더 단단하게 보여주기 위해 빛을 흡

수하는 따뜻한 느낌보다는 빛을 반사하는 차가운 소재로 표현하기 시작 했다. 그러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선들은 원형의 기둥을 연상시키며 굽기의 변화 없이 일정하기에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인공적인 존재들을 자연적인 색채로 표현함으로써 각각의 작품마다 기둥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표현하였다.

지하공간에서 개방성과 공간의 확장성을 위한 방안으로 유리의 사용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유리는 그 물질 자체의 투명성으로 투과효과 혹은 반사효과를 통하여 유리 전후의 이미지를 반사하거나 투영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하나의 시각적인 스크린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유리면에는 주변의 조도, 휘도 및 유리의 반사율 등의 변화에 의하여 전후의 이미지가 투영된다. 이러한 유리의 사용은 개방적인 공간과 시각적 다양성을 형상화 한다.<sup>13)</sup> 【작품11】에서의 창문의 등장은 지상으로 상승하기 이 전의 상태이다.



【작품11】 창문, 90.9 × 145.4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13) 신영민(2002). 지하공간의 영역구성과 실내환경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p

연구자가 처음 아파트지하실에 문을 열었을 때 유일하게 들어오는 빛은 높은 천장 위 쪽이 좁은 창문 이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지하의 구조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며 지하 안에서의 새롭게 생성된 또 다른 구분계층 이다. 지하이지만 지하가 아님을 바라는 상승욕구 등이 반영된 사회적 구조의 기대심리가 엿보이는 상징이다. 이러한 상승욕구는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연구자의 심리가 반영되었고 연구자의 내면세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새 서서히 계단 위를 올라가기 시작했고 바다의 지평선 위 창공의 세계를 상상하게 된다. 【작품12】은 창문의 틀 없이 지하공간이 지상으로 상승한 화면구성의 최초작품이다.



【작품12】 전망대, 172.7 × 60.6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높은 곳에서 연구자의 내면풍경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화면분할을 통해 풍경들의 차원과 시점을 다르게 구상하였으며 선으로 바다의 경계를 구분지어 작은 화면에서도 바다를 다각도로 표현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확장된 바다와 수평선 너머의 무한성을 표현하였다. 한 화면에 하나의 공간만을 채워가던 형식에서 벗어나 여러 공간의 집합을 이루었다.

지하와 지상을 오르내리며 연구자는 더욱 확장된 세계를 창조해나갈 수 있었다. 지하공간은 폐쇄적이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물’의 공간이 있어 신비한 미지의 세계를 탐구 할 수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창공(蒼空)’ 즉 ‘하늘’이라는 한계가 가늠이 어려운 무한한 세계가 열렸다. 하늘은 인간에게 있어 ‘상승’과 ‘무한’의 상징성과 연결된다.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또는 현실에서 내적인 신비의 세계로 도약하게 한다.<sup>14)</sup>

천문학의 영역에서, 하늘은 또한 천구(天球)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것은 태양, 별들, 행성들, 달이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돔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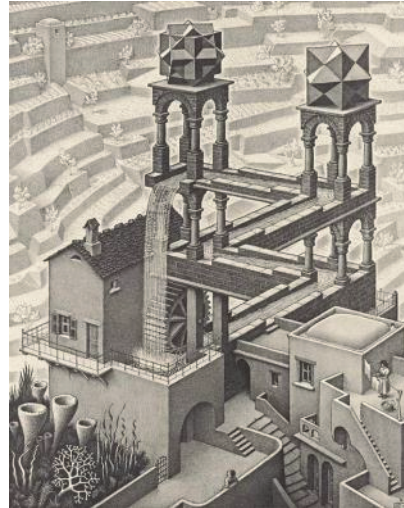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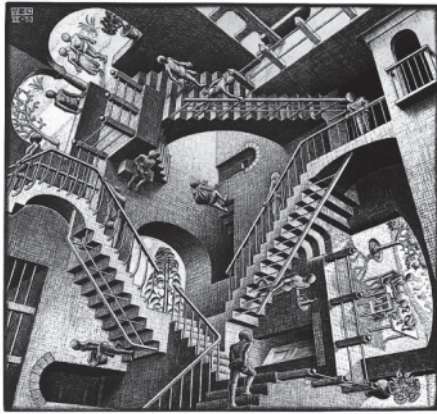
【작품13】 바람이 많이 부는 날, 90.9×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이러한 지상표현은 좀 더 밝고 상승의 에너지를 받으려는 연구자의 심리가 드러나며 지하에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연구자만의 세계를 만들고 감추어 놓았다면 이제는 공간을 가두고 정형화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화면의 확장은

14) 이고은(2003), 하늘로 투영된 의식과 이미지의 표현,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4p

15) 황인순(2011), 하늘 이미지의 내적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9p

네덜란드의 판화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ce Cornelis Escher, ~1972)<sup>16)</sup>의 영향을 받으며 지하와 지상의 구분을 두지 않으며 공간 자체를 연구자의 이동범위이자 이러한 이동의 반복이며 반복의 행위의 종착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도판1】 에셔 상대성, 63×53cm, 석판화, 1953, 국립 미술관, 워싱턴DC, 미국

【도판2】 폭포, 석판화, 1961, 국립 미술관, 워싱턴DC, 미국

에셔는 는 기존 서양의 공간의 구조인 원근법을 전복하고 에셔만의 공간지각을 창조한 판화가이다. 그가 보여주는 공간은 현대 수학과 물리학의 영역에서 파급된 공간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적 공간관을 예술적 재능에 의해 독특한 회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sup>17)</sup> 에셔는 당연하다 인식하고 있는 구성들을 비트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

16)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Maurice Cornelis Escher (~1972) 네덜란드의 판화가. 1936년경부터 기하학적인 작풍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특이한 작풍은 겨우 1960년대 후반부터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뫼비우스의 띠』(1956, 석판화, 레그에셔제단)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17) 정은희(2001), 「M.C.에셔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 기하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p. ii

게 되는 ‘순환성’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사유의 인식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표현한 바 있다. 그 공간 안에 불안정한 요소들의 나열은 기하학적 구조물을 통해 오히려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반복으로 본인 존재에 대해 더 깊숙이 귀 기울이며 탐구하고 있다. 【도판1】, 【도판2】에서 에서는 무한한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호프스태터는 에서의 작품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 무한히 순환하기 때문에 무한성의 개념을 함축하는 이상한 고리의 개념을 시각화 한 것으로 평가한다. 에서가 표현하는 무한성은 공간 유형인 ‘평면의 규칙적 분할’ 작품들은 무한히 밖으로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의 일부로써 존재한다. 그러나 에서가 원한 것은 유한한 그림 공간 안에 무한성을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한성을 포획하기 위해 에서가 도입한 순환적 반복은 프리드리만의 우주론이 장정하는 팽창과 축소를 반복하는 순환적 우주 공간과 관계될 수 있다.<sup>18)</sup>

수학적인 법칙들은 인간의 발명품이나 창조품도 아닌 그 존재 자체이다. 독자적으로는 인간의 지성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알아낼 수 있으며 인지할 수가 있다.<sup>19)</sup> 에서는 규칙적 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시도한 것 중 가장 풍부한 예술적 기초이며 그리고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았다”<sup>20)</sup>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수학적 자연법칙을 예술이라는 장르에 끌어들여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비일상적인 환상의 공간을 창조한 에서의 체계를 오마주(hommage)하여 【작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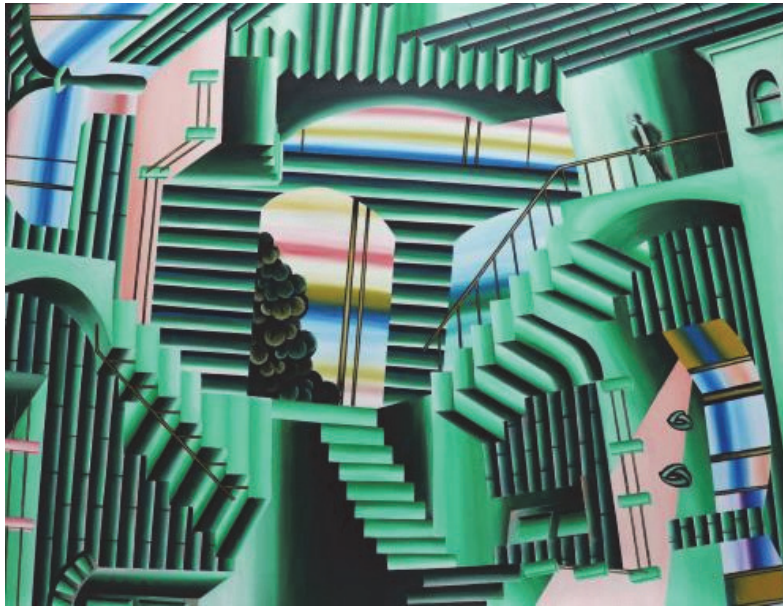
---

18) 정은희(2001), 「M.C.에셔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 기하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p.80, p.81

19) 한루미(2001), 「에셔(M.C.Esher)작품의 이미지와 순환 연구 : 환영의 공간속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p.16

20) Bruno Ernst, 「<The Magic Mirror of M.C.E.scher>」, new york : Barnes & Noble, Inc. 1978. p.35

를 작업하였다.



【작품14】 에셔의 방, 116.8×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2. 직선과 빛 표현 연구

‘직선(straight line)’은 조형표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점, 선, 면의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직선은 예로부터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어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직선이 갖는 단순함, 명확함, 견실함 등의 요소로 인해 시각적 전달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선의 조형성의 추구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로움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sup>21)</sup> 이러한 직선은 연구자의 작품세계에 조형적 구성인 시각적 형태이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직선의 상징들이 유기적으로 변주하며 연구자가 추구하는 안정감의 역할로 등장하는 요소이다. 안정된 공간을 구축해가는 연구자는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3차원의 공간이 필요했다. 3차원을 이루는 기본 구성틀은 일반적으로 깊이, 넓이, 높이를 대표하며 수학적으로 XYZ 값으로 형용하는 기하학적 입체나 공간을 기술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3차원의 공간을 구성하는 직선의 역할은 연구자의 사유 속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비어있는 공간에 집을 짓듯 건설의 자재(資材)의 역할을 한다. 【작품15】, 【작품16】, 【작품17】에서 나타는 직선은 인물이 처해진 공간의 정보를 담은 소재로써 직선들의 조합은 사각형의 ‘면’이 되어 벽돌과 계단, 기둥이라는 의미정보를 담는 매개물로 창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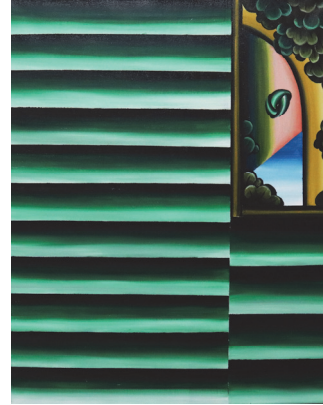
공간의 측정에 있어 필수적인 기하학(geometry)은 문명을 이루는 기본토대의 학문이며 현대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의 법칙은 철저한 수학적 원리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칙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

---

21) 김명중(2008), 「직선의 이미지를 응용한 라펠장식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작품15】 성 안, 45.5×37.9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작품16】 성 벽, 65.1×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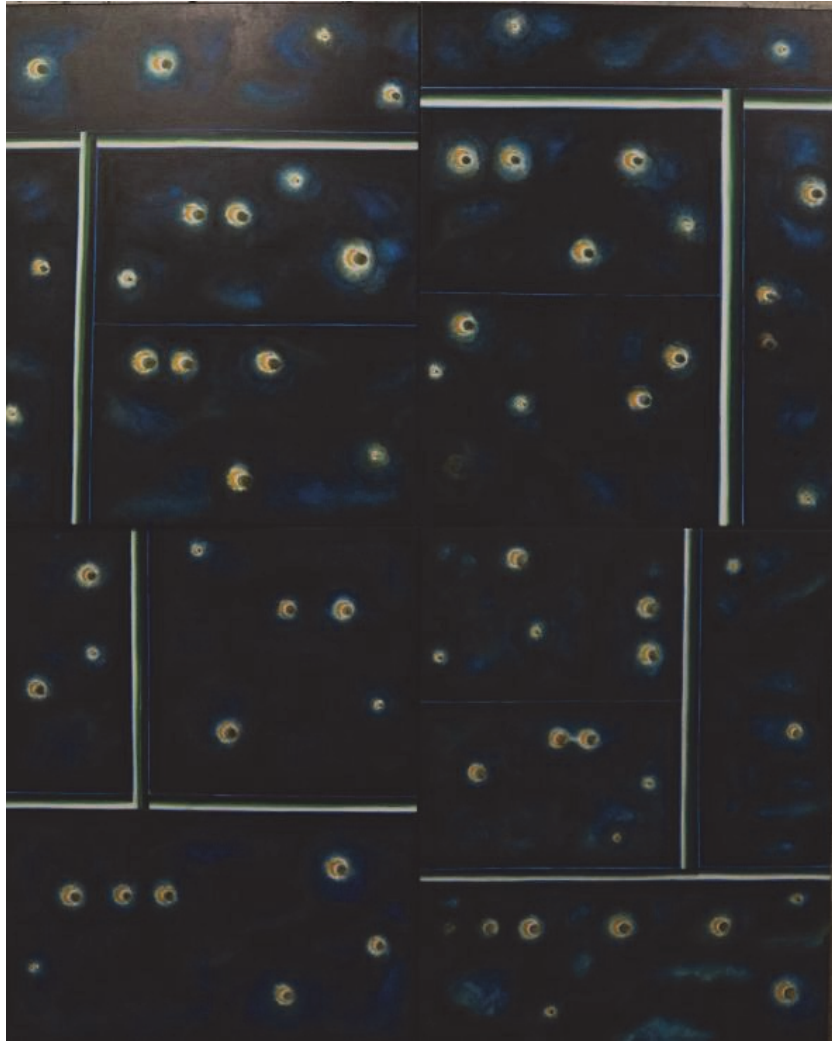
【작품17】 떨어진 남자, 90.6 × 7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자연법칙으로 생명은 탄생하며 성장,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철저한 규칙으로 생겨난 자연물을 인간은 ‘미美’라 여기며 무수한 예술작품을 탄생시킨다. 기하추상의 대표적 인물인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1~1944)<sup>22)</sup>은 신지학<sup>23)</sup>의 신 플라톤적이고 범신적인 관념들을 통해 우주와 자연의 신비 및 인간존재의 신비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신성한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선 직관(intuition)에 의해 신과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 때때로 이러한 직관 혹은 신성한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개인에게 계시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의 결과로 설명되기도 하며 신지학이 가지는 우주원리의 성격은 동양의 음양설, 유럽과 아시아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던 만자형 등이며 모두 양극단, 혹은 창조와 생명을 나타낸다. 이렇게 고대 사상들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들, 즉 십자형과 몬드리안의 수직, 수평선과의 연관성은 신지학이 말하는 2원적인 요소들의 대립이며 이는 수직과 수평의 조형이미지로 귀결된다<sup>24)</sup>. 몬드리안은 남성을 수직선, 여성을 수평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두 요소의 대립은 무엇보다 합일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합일로 인해 우주는 균형을 이룬다.

22)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와 더불어 추상회화의 선구자라 불린다. 그의 기하학적인 추상은 20세기 미술과 건축, 패션 등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고 1909년 5월 25일 네덜란드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다

23) 신지학(Theosophical)이란 종교가 아닌 신성한 지식(Divine Knowledge)이며 학문이다. (神)과 ‘Sophia(知)’가 합쳐진 말로써 그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지혜(Divine Wisdom)”, 혹은 “신의 지혜(Wisdom of the God)”라고 말하고 있다. 신성한 본질자체에 있는 힘의 작용으로부터 ‘현상적인 보편성’을 연역해내려는 것이 신지학의 특징이다.

24) 전혜숙(1985),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p.12, p.13



【작품18】 밤하늘, 154.4 × 181.8cm, 캔버스에 아크릴, 2019

이렇게 몬드리안은 수평과 수직의 균형과 합일로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는 평형적인 긴장은 ‘수직-수평’이라는 두 요소로 요약되고, 그것의 대립은 결국 직각과 사각형이라는 평면을 만들어 낸다. 그럼으로써 수직, 수평선은 균형을 이룬 조화를 형성하는 것이다.<sup>25)</sup>

연구자는 이러한 직선을 화면 구성요소에 있어 미미적 요소로 적용 시켰으며 【작품18】에서 표현한 자연의 이미지와 직선의 구성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대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립은 오히려 조화를 이루며 몬드리안이 추구했던 대립의 합일과 연구자의 작업적 방향성이 유사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앞에 언급했던 자연과 기하학의 연관성은 인간의 시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 표면적인 모양 혹은 생김새를 뛰어 넘어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구조법칙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기에 연구자는 이미 합일이 이루어진 자연과 기하학을 역설적으로 분리시켜 그 둘의 연관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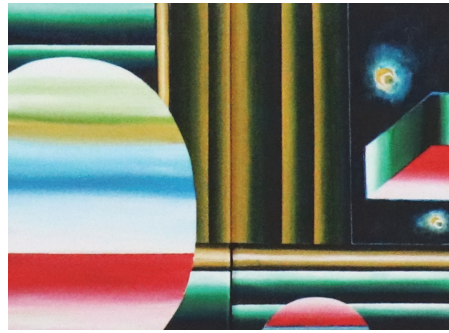
【작품19】를 통해 연구자의 내면 공간을 화려한 색채로 뒤덮었으며 이러한 색채와 선의 만남은 연구자가 추구하는 환상의 세계를 선사해주고 있다.



【작품19】 상승 후 정지상태, 66×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25) 전혜숙(1985),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p.20

연구자가 창조하는 가상의 공간은 주로 색채로도 표출되며 이는 ‘가상’을 상징하는 ‘홀로그램(hologram)’을 떠올리게 한다.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에서, 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이다. 기준이 되는 레이저광과 물체로부터의 반사 레이저광으로 이루어지는 간섭 줄무늬를 필름에 농담(濃淡)으로 기록한 것으로, 간섭 줄무늬는 사진화되는 물체의 광학적인 모든 정보를 지닌다.<sup>26)</sup> 다시 말해 가상의 공간을 실제처럼 재현하는 방식의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을 막기 위해 유리판이나 필름을 사용하여 빛이 기록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3차원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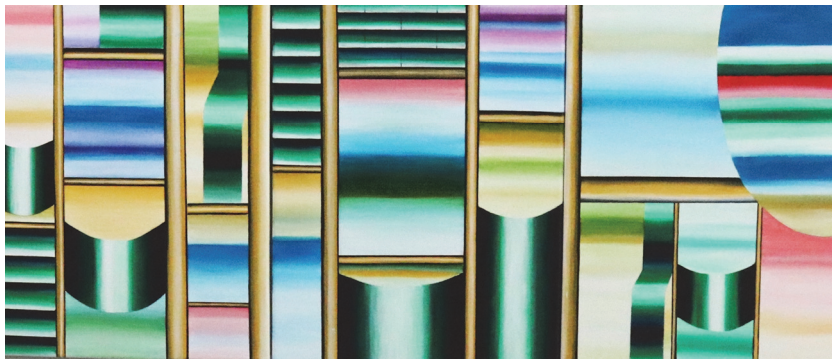
【작품20】 구멍1, 27.3×22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작품21】 구멍2, 27.3×44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가상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연구자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환상의 공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결국 인간이기에 영향 받는 외부의 현상들은 자연스레 연구자를 통해 재구성 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연구자가 추구하는 가상의 공간을 캔버스라는 텅 빈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연구자가 상상하는 홀로그램으로 가득 찬 가상의 세상은 연구자에게 있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간

26) naver 국어사전

이 아닌 엄청난 낯섽을 주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낯섽은 오히려 연구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항해를 하며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위에 언급했던 ‘지하실 탐험’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탐구의 대상이다. 강한 빛의 조합은 자칫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연구자에게 있어 매력의 대상이며 가상의 세계 혹은 허구의 세계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미묘한 떨림을 작품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작품22】 창문2, 27.3×6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인간의 사유와 공간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자기존재를 어떻게 회화적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서술하였다.

인간이 사유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가상이라는 공간을 설정한 뒤 캔버스에 투영시키며 그 공간 속에서 연구자만의 환상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연구자는 유년시절부터 그림을 통해 내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성취감을 느끼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음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가는 삶의 기록을 담은 그림들은 연구자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커다란 주머니라 느꼈고 이러한 생각이 확장되어 현재 연구주제로 언급되는 무한한 공간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연구자가 추구하는 모든 존재들과 조형들이 누적되는 공간이며 유년시절 지하실에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황과 접목시키며 더욱 더 신비롭게 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세계구축의 결과물은 작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지적생산물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삶의 과정의 순환이라고 생각했다.

연구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된 매개체인 공간을 연구하며 인간과 공간이 너무도 깊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유년시절 느꼈던 지하공간에 대한 기억을 통해 연구자가 어떠한 이유로 공간을 작업하게 되었는지 또렷이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표현은 공간 그 자체가 가지는 특징과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연을 조합해 보았으며 최근 작업을 통해 낯선 색채의 조합으로 신비스러움을 표현하려는 움직임은 연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인간의 마음의 크기를 ‘그릇’으로 비유한 바 있다. 그릇이 커질수록 좋다. 비어있기에 의미가 있는 그릇처럼 연구자의 사유 속 공간을 깊고 넓게 확장시키며 아름답게 조성할 것이다. 처해진 상황마다 공간의 크기가 변화무쌍 하

겠지만 이 또한 연구자의 몫이다. 가끔은 깊이 숨어 찾기 힘들 지라도 항상 들여다보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연구자의 공간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17,  
오토 프리드리히,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프리초프 카프라 지음, 김용정, 이성범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  
사, 2006

### 학술자료

- 김명중, 「직선의 이미지를 응용한 라펠장식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  
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유진, 「요가 수련자의 참여 동기와 자아성취감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9  
김동규, 「시 짓기와 사유하기 사이: 후기 하이데거 예술철학 고찰」, 연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신영민, 「지하공간의 영역구성과 실내 환경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유경아, 「호텔 주방의 물리적 환경이 자아성취감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  
향」, 청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고은, 「하늘로 투영된 의식과 이미지의 표현」,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전혜숙,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5  
정은희, 「M.C.에셔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 기하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루미, 「에셔(M.C.Esher)작품의 이미지와 순환 연구 : 환영의 공간속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황인순, 「하늘 이미지의 내적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Bruno Ernst, <The Magic Mirror of M.C.E.scher>, new york : Barnes  
& Noble, Inc. 1978.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 ABSTRACT

## Research on the expression of human and space perception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Lee, so yeo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eeks to research how an individual's experience and imagination can be expressed in the form of art by systematical analysis of methods and concept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works from the master's degree requirement exhibition 'Cuckoo Basement' in 2019.

My works can be interpreted as attempts to substantialize an extremely personal and thus stable micro-inner space within the mind. In the sense that such a space enable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elf' through endless reasoning, this virtual space can also be thought as an important form of Giwoon(spiritual energy/氣運). Furthermore, the process of visualizing such energies onto a 2-dimensional canvas as 3-dimensional spaces can therefore be

considered to be both physical and spiritual, expanding one's inner space.

The repetition of this process results in a greater inner space, which in turn causes the Giwoon to thrive. The thriving Giwoon then of course, even further expands the inner space, and therefore results in a virtuous cycle that results 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neself.

Even at a young age, the act of painting and its results were a way of seeking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the depiction of various elements of life was a way of forming ego identity. Of course, the formation of identity through visual expression is not limited to my childhood, but is rather an ongoing concept. Canvas is still a representation of my existence, and on this spiritual yet physical space, I expand my original outlook on the world that has been formed and shaped over the years of painting.

What once began as the question "What is man?" has develop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to become "Who am I?" in the modern society. Everyone is now searching for a place where one can be fully oneself, and where one can spend time on his or her own. Throughout the search for the essence of individual existence, certain events occur. When one of them specify a special meaning to an individual, the event intertwines with the individual's former view of the world, giving birth to a much clearer, newer world. If such a world were to actualize visually, it would be a charming spectacle.

In my case, the thrill and mystery of the basement during childhood had a very special meaning. 'Cuckoo Basement' is a subjective

portrayal of that personal experience, and the scenes that take place in that space are only illusions of my imaginati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tructures that defy common sense and are inexplicable that were in my mind have actualized through painting implies the distinctiveness and the importance of pictorial expression.

Furthermore, I could be reminded the importance of my spiritual place, for it is the essence and the subject of my work. As the method to construct this inner world, I have chosen the contrast of underground and surface as a physical concept, straight lines as a dimensional concept, and light as a color concept. The close examination and study of the resulting space became an opportunity to concretize the direction of my future works.